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협의

무주, 하노이 응에안 성 노동위 관계자들 만나

반딧불사와 관측행사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이하 하노이)를 방문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이 도착 첫 날인 6일 응에안 성 노동위 담당자와 개인 사업자들을 만나 계절근로자 파견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만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노이 방문 전 무주군이 해당 건과 관련해 응에안 성과 접촉하면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이 도입해 추진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공유됐으며 법적인 사항 등 세부 사항들에 대한 실무 협의와 업무협약 체결 등에 관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농촌에 불어 닥친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안정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지난 9월에도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화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까지 관내 다문화 가정의 외국 가족과 4천 이내 친인척을 활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들이 6일 베트남 하노이 방문했다.

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불법 체류자 발생,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해 9월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적합한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요구 인원을 비롯한 주거와 숙식 조건, 최저 인건비 지급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세부 계획을 수립,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2020 봄 시행 / 사과 꽃 · 일 따기, 수확 / 3개월 체류, 연장을 통한 최장 6개월 체류 가능)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근로·복지 후생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하노이 응에안 성 노동위원회 담당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무주군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라며 "파견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개인 사업자들도 함께 자리를 해 의견들을 나눈 만큼 모두가 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문화재 안내판 15개소 정비

문안·안내판 디자인 시민자문단 의견 반영, 11월말 선봬

진안군은 올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읽기 쉬운 용어와 문화재의 가치를 흥미롭게 알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내판 15개소(국가지정문화재 2, 도지정문화재 13)에 대해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월 말까지 정비를 마쳐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전문가와 향토사학자, 학생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안내문의 난이도와 흥미성 등을 검토했다. 또 국어문화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내실 있게 개선한다.

이번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안내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도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를 찾는 관람객 누구나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숲가꾸기 육림의날 행사

와룡자연휴양림서 열려

장수군은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7일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숲가꾸기 육림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청 산림과 직원과 산림조합 작업단 및 관계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불진화대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등 700본에 비료를 살포하고 1.0ha 대상으로 가지치기, 덩굴류 제거 등 나무순살 작업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진안군, 내달 4일까지

진안군은 7일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를 다음달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우리도 내년에 농업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 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다른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안전교육,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은 올해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 21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및 조림지 가꾸기를 전개하는 등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산림인 장수군의 자연과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이번 사업으로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다. 지원금액은 1포(20kg)당 등급에 따라 1400원부터 17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군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물량이 결정되면 지역농협(조합)을 통해 영농기 이전인 내년 1월부터 농가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비료를 신청한 농업인들이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 아리

장수서 체육행사 다채

의암 주논개배 전국오픈탁구대회와 야구대회가 오는 주말 장수군에서 펼쳐진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의암주논개배 야구대회가 9·10일, 16·17일까지 장수공설 운동장 야구장에서 전주, 거창, 광주 등 전국 야구동호회 16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참가팀은 장수3팀, 무주2팀, 전주2팀, 거창, 남원, 함양, 완주, 대구, 광주, 김제, 통영 등이며 전북 청각장애인 야구팀인 데프다이스노드도 참여한다.

제19회 의암 주논개배 전국오픈탁구대회는 장수군 체육회주최, 장수군탁구협회 주관으로 오는 9·10일 한누리전당 산디관과 다목적체육관 한누리탁구장에서 선수단 및 관계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회는 남자팀 서울시청과 인천시체육회, 부산영도구청, 여자팀은 서울금천구청과 포항시체육회, 장수군청 등 실업 탁구단 6개팀이 참여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마령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진안군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광수)는 7일 마령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30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웰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령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마령면이 후원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이용자들이 1년여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인 자리로 작품 전시와 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마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한 마령 웰빙은 '맛있는 소풍'을 테마로 먹거리마당, 체험마당을 준비하여 5일장이 열린던 마령 옛장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마령 장터 복원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진행된 영화 암살 상영은 깊어가는 가을밤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나눔행사를 함께 한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좋은 이웃들,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마령면 봉사자들의 자원봉사로 원활한 행사진행에 도움을 줬다.

정광화 마령면장은 "오늘 행사가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행복한 마령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금연환경도 정신건강도 으뜸

올해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정신건강사업 유공 표창

무주군이 지난 7일 2019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에 선정(보건복지부장관 상 수상)된 동시에 2019년 정신건강사업 유공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9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 시상식은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도 금연사업 담당 공무원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이뤄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7월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조례'를 공포·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무주군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UCC 공모전' 추진과 '금연다짐! 건강다짐!' 트리아트'를 설치하는 등의 주민참여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또 금연등록카드 발급(25개 모범음식점과 연계해 등록 후 6개월 간 음식 값 1천 원 할인)을 비롯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학교, 공공기관, 민간업체, 경로당 등) 등 금연상담실 운영과 금연서비스 지원 개선으

로 금연 등록자 증가(2018년 10월 기준, 165명)→2019년 10월 기준 205명)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성인 흡연자와 서포터들 대상으로 '금연다지기, 건강다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자에 대한 통합서비스(운동, 영양, 한방, 구강)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 의료기관과도 협력해 금연과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조수현 원장은 "금연인구가 늘고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